

제5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4일 (금) 11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9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으로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11시 02분)

○ **위원장 김광운** 의사일정 제1항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께서는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장님과 안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 중에도 충청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합이 충청권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하나씩 주요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책자에 따라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상황,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 순입니다.

책자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는 초광역도로팀·초광역철도팀·초광역교통팀·초광역농산환경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금년도 초광역건설환경과 예산은 총 3억 3,100만 원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올해 충청광역연합 비전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중심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3대 전략 목표와 11개의 이행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 목표별 추진 상황입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 전략 목표는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 교통 서비스 제공과 미래 교통수단 육성, 농산·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4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한 국가 간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세종~안성, 세종~청주 청주 고속도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계속 추진 중이며, 경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신규 사업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세종~논산 고속도로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 계획

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6쪽, 충청권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철도망 구축입니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서고속선 등 7개 신규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관계 부처 방문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철도인 호남선 고속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관계 기관 협의 등 철도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철도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선도 사업인 CTX 사업을 포함해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 협의체 개최, 대응 방안 회의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 협력 하고 있습니다.

17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미래 교통수단 육성입니다.

공주~세종 광역 BRT 사업 적기 추진과 광역 BRT 사업 운영 권한 위임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7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미래교통수단 UAM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18쪽, 초광역 농산·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충청권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를 위해 4개 시도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추진하여 충청권 청년 농부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우수 청년 농부 선진 농업 국가 벤치마킹과 충청권 지역 농산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개 시도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 환경·생태 사업으로는 지난 4월에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충청권 도시 생태축 복원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신규 사업입니다.

초광역 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연구용역과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부분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2쪽까지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청광역연합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과 고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저희 연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초광역건설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에 있는 충청권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있는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충북에서는 매년 청년 농부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충청권 4개 시도는 각각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네트워크가 사실상은 개별 시도 중심의 운영 체계에 머물고 있어서 광역연합 차원의 통합적 플랫폼이나 공공정책 등이 없을 뿐더러 청년 농업인 간 교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우리 충청광역연합 차원에서 충청권 시도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한 충청권 공동 플랫폼 구축이나 아니면 그간 추진 상황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요, 공식화된 조직이나 플랫폼 구성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충청권 관련된 청년 농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의장님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각 시도 실무 부서 담당자들과 4-H 청년 회원들 모여서 한번 실무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북을 포함한 각 시도에서는 청년 농부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충청권 전체 청년 농부 연합체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 11월 전에 농번기를 피해서 시기를 잡아서 다시 한번 간담회·워크숍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이수현 처장님은 충북의 도시농부 사업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4개 광역의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있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충남은 청년 어업인에 대한 혜택 지원 사업이 있고, 세종이나 대전은 저희 충북·충남은 상대적으로 농업의 종사자들이 적다 보니까 인원 구성이 작기 때문에 다르

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농업에 대한 지원은 각 시도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들, 농정 부서라든지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같이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행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사성 워크숍 또는 홍보성 사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청년 농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청권 청년 농부 육성 네트워크 구축 일환으로 우리 충청광역연합이 선도적으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참여 구조를 제도화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처장님?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구체적인 제도화 계획은 아직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농부들이 지방에 정착을 하면서, 이거는 인구 유입과도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계속 14개 시도와 협의를 통하면 계속 저희가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4개 광역에서 잘된 정책 같은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광역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준비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같은 18쪽인데 금강수계 물환경 관리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난 4회 정례회 때 제가 대표발의 해서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이후에 후속 조치로 금강 유역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 및 물환경 지역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수질 기준이나 책정 규정, 관리 방식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초광역적 통합 기준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에요.

맞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물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이나 또는 4개 시도 간 통합된 조사 항목 그리고 또 분석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계획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4개 시도 담당 실무자들 협의를 해서, 금강청 담당자 포함해서 실무자 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저희가 담아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 저희가 연말까지는 금강유역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억 원 정도 예상되는 예산이 중장기 사업으로 시도별 예산 분담 그리고 집행 방식이 어쨌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청광역연합이 예산 배분 기준 그리고 또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계획은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 처장님,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 예산을 세워서 그 용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답변 감사 드리고요. 이상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운**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의 충청권 발전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에 공주 탄천~행복도시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KDI 주요 지표인 AHP하고 B/C가 기준치보다 낮아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 현재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 듣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 요구에 맞게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조차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 재조정이나 공사비 절감 등의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말씀하신 행복도시와 탄천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AHP랑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타는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보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열심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열심히 발굴한다는 얘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발굴 내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이 부분은 대광위 쪽에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미선정된 사유 중의 하나는 교통량이 좀 부족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광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수시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공주 탄천~행복도시 간 연결도로는 우리 행복도시하고 부여군 또

KTX 공주역 등 충남 서부권의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많이 이용되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활력을 새롭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KTX 공주역 같은 경우는 활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논리 개발이 안 된다면. 국비 반영이 어렵다면 민자 전환이라든지 부분 구간 우선 추진이라든지 이런 대안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실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운** 오세준 과장님, 답변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건설환경과장 오세준입니다.

지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 타당성이 미확보되어서 교통광역 개선 대책 4차 용역을 행복청에서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보완 부분 그쪽에서는 노선의 조정이라든가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예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상당한 기대감을 줬는데 그 또한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예타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예타를 받아들여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부분이니깐 그럴 경우, 아까 추후에 국비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자 사업이나 부분 구간 우선 추진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어요.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위원님, 아직 민자 부분은 검토가 안 됐고요, 그거는 행복청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 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차선택도 갖고 있어야지, 만약 지난번처럼 안 됐을 경우에 또 다시 계속 공모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BRT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BRT 노선을 지금 몇 군데 추진 중에 있지요.

그 설명을, 간단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세종 BRT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2단계 사업

도 계획하고 있고 또 국회의사당에서…….

○박미옥 위원 지금 세종~청주터미널, 공주 시내에서 KTX 공주역까지…… 아니, 이거는 추후 예정이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추후 신규 예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예, 추후 예정이고, 행복도시에서 공주터미널까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사업 진도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어요. 시간 가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연계해야 할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진행 과정, 충청연합에서의 사업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현재 세종하고 공주에 대한 BRT는 진행 중에 있고, 세종~공주 2단계 BRT하고 세종~천안에서 2단계, 또 세종~청주 BRT는 현행 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새로운 노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 가는 국회의사당 BRT나 세종터미널에서 충북 청주 동남 지구까지 가는 동남 BRT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대광위에 그 부분 계획을 종합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는 사항이고, 예산은 저기까지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우선 계획 수립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행 개발 계획도 수립이 되어서 실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우선은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도시에서 공주까지 BRT 노선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 지역에서의 약간의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더 거론을 안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내용에서 그 부분까지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함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논의 중에 있고 또 관련돼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중간중간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차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좀더 확실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원활한 BRT 노선에 대한, 주민들이 원했던 비알티 노선에 대한 부

분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운**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16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룡이나 대전 도심지에서 신탄진을 오가는 도로에 정체 구간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26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공사비나 지장물 이설 이런 것들로 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준공이 '27년으로 지연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 사업이 '23년 말에 착공 예정이었지만 추가 지장물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올 6월까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설계 재검을 완료하면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지연되었던 본공사가 늦더라도 '27년에는 시운전을 거쳐서 개통되어야 할 텐데 현재 총사업비 확정이나 설계 승인 등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준공까지의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철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해서 사업비가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 및 시스템 등 후속 분야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거에 대한 보상은 9월 정도에 계획 준비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이설 공사를 착공하고, 건축 시스템 분야 실시설계 등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주화 위원** 당초보다 사업비가 얼마나 증가됐나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당초에는 2,100억 정도 하는 예산이 현재는 5,500억 정도 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 그렇지요?

향후 추가 지연 가능성에 대한 위협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 계획이나 시공 행정 리스크 대응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하지만 실무적인 건 저희 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운** 오세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건설환경과장 오세준입니다.

현재 건축 및 시스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4월부터 보상 계획이 공고돼서 9월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에 대한 이전 공사가 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당성 요건에 해당은 되지만, 이것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을 돌려서…… 그러니까 예타에 대한 재조사가 아닌 사업 계획 재검토로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는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주화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거를 관심 가지고 더 빨리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할 증가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충청권 중심의 국가도로망계획 수립 대응, 신규 노선 건의에서 충청권 제2외곽 순환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 정부의 지역 공약이었고 현 이장우 대전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충청광역연합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광역 순환고속도로 사업인데, 4개 지자체의 도로 관련 부서를 포함해서 4개 지자체장들의 합의가 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지자체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추진 상황은 연합이 지난번 대선 공약 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각 시도에서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15쪽의 자료를 보면 순환고속도로 구간이 약 76.8km예요. 예산은 약 4조 5,000억, 각 지자체별로 노선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충청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되는 것인지 노선에 대해서도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운** 오세준 과장님, 답변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건설환경과장 오세준입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현재 충청권에 9개 지자체가 TF를 구성해서 2022년 12월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세부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구간은 각 시도별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가도로망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 1차적이고요, 앞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하는 거, 현재는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노선이 각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노선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시도와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1차 계획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역연합에서 조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달리 우리 충청권의 경우에 고속도로 신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경제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주요 고속도로 건설 현안 사업들도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본 사업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등의 명확한 대응 논리가 필요한데 이 사업의 경제성 등의 논리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충청광역연합 차원에서 조치한 실적 또 노력, 협의에 대해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청광역연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도의 도로 담당 부서 실무자들과 지난 5월에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국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향도 같이 공유하면서 논의를 했고, 또 각 시도에서 신규 노선으로다가 추가로 발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합이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 연합이 같이 조정하면서 중앙국가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 연합과 각 시도가 같이 상생하는 자리로 같이 가자는 취지로 계속 하고 있고, 이 협의체는 계속 주기적으로 운영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자료 보면 15쪽에 경부고속도로 확장 해서 회덕~청주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안성~세종 간의 구간과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다는 취지로다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라는 논리로 계속 부처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운**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박주화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은데 총사업비가 얼마로 변경됐다고 하셨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2,100억에서 5,500억으로다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5,500억이 맞나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5,502억 원.

○**박란희 위원** 2,100에서 5,500이면 거의 2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거의 160% 이상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아무리 지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부실하게 수립한 거밖에 안 되는데 2배 이상의 재원이 확보가 된 건가요?

또 하나는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 재검토도 하면서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재검토의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운** 예, 오세준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건설환경과장 오세준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당초에 2,107억에서 지금 추계에 나온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 5502억으로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61%가 상승됐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맞는 사항 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진행된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타당성 재검토를 적정성 재검토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현재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논의 중이라는 말씀은 예타를 다시 하지 않고 적정성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예,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재검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시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토지 보상이 언제쯤 될 거라고 답변을…….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현재 그거는 계획 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토지 보상을 실시하실 건가요?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현재 공고하고 그 부분은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운**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운**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철도팀장 김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노선 전체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보상 공고는 됐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보통 철도 사업이라는 게 거의 20년가량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계획 할 때랑 설계비랑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무조건 굉장히 올라가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1단계는 실시계획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계 같다고 보는데,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어느 부분까지 수용을 해 줄

지에 대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사업계획서 재검토로 간다는 거는 현재 1단계 사업의 사업 진척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에 매몰 비용이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 계획 재검토가 아니라…… 긴장이 되어서 잠시만요. 적정성 검토로 돌려서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사업비에 대한 검토만 계속 논의가 되는 거고, 사업비를 얼마 정도 조정할지에 대한 결정만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우려하시는데요,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 진행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척도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난번 3회 임시회 때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정상 추진 건의 하셨고, 6월에도 대전시의회 의장님께서 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상 추진을 건의하는 등 광역철도 1단계에서는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이 기재부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상 답변…….

○ **박람회 위원** 팀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맨 처음에 2,100억이 책정된 때가 몇 년이었어요?

○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잠시만요, 제가……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가 그 금액이었어요.

○ **박람회 위원** 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되었나요?

○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기본계획 완료는 '18년 12월입니다.

○ **박람회 위원** '18년 12월에.

○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예, 그리고 시작 자체가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된 거라 2011년이요, 시작이.

○ **박람회 위원** 그럼 벌써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예, 그렇습니다.

철도 사업 자체가 굉장한 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3년 이런 간격만으로도 철도는 그런 애로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람회 위원** 현재까지 매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지금 매몰 비용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재 기집행한 사업비가 448억 원입니다.

○ **박람회 위원** 기본설계만 하신 거잖아요.

○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상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설계 비용은 많은 사업 전체에 사업비에 대비해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능성 궤도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진행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협의나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 시간을 요구하고요, 노력과.

○**박란희 위원**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승인 여부는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저희 계속 동향 파악 하고 있고요,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업비를 저희가 5,502억 원이잖아요. 5,502억 원으로 늘어날 걸로 저희는 요구하는 거고 기재부에서는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일단 사업은 추진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재검토가 승인이 될 때 언제쯤 준공이 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준공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박란희 위원** 재검토가 원안대로, 충청광역연합에서 예상하는 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은 사업 계획성 재검토를 하면 기본계획대로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완료가 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과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박란희 위원** 2027년에는 시운전을 통해서 운행이 가능하더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그거를 딱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사업 계획성 재검토를 하면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은 다 진행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초광역철도팀장 김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운**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처장님, 저희가 사실 각 시도가 떨어져 있고 세부적인 사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대전이나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사업을 다 숙지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연합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도 숙지가 덜되어 있지만 사무처에서 업무에 대한 숙지가, 특히 사무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숙지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부족한 인력은 이해하겠지만, 좀 더 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처장으로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선이나 교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사죄드리면서 다음번 다음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니다.

다만 하나 아쉽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각 시도와 중앙 부처와 연결되는 동향 파악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디테일한 모든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사죄드리고 그 부분 다시 한번 공부를 정확히 하면서 다음번에 다시 정확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란희 위원** 그 현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총괄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 앞에 던져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그래서 충청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는 중요한 이슈이고요,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내부적으로라도 지금 팀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과장님이나 또는 처장님이나 소통이 좀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UAM 관련해서 7월 달에 설계서 작성하고 발주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비전이나 전략적인 실행 계획 같은 거,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대한 4개 시도의 합의점이 도출됐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저희가 이 부분 각 시도에서는 개별적으로 UAM에 대한 기본계획은 준비를 해 가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서로 논의를 하면서 요구 사항, 충남 입장이 다르고 대전의 입장이 다르고 세종이 다르고 충북이 요구하는 파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실무자 회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통된 노선으로 공통된 사업 방향을 잡으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될 때 용역 들어가면서 사전에 한번 준비한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지금 7월에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발주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가 이 부분은 2억의 용역비가 있어서 그거는 용역에 대한 준비인 거고요, 지금 제안서를 공고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위원 구성하고 공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바로 7월 중에 입찰 공고가 뜨면 협상에 의한 공고로다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수행 기관이 선정되면 그 부분을 4개 시도와 저희 연합이 같이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과업의 기준이나 과업 지시 사항들을 결정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런데 우선은 지난달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시범 사업 공모가 4월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 범위 내에서 플러스알파 더 담아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용역이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나가겠지만 기본 방향은 시범사업 나와 있는 안을 갖고 저희가 시도 의견을 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란희 위원** 예, 어느 정도 기본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이 맞추려면 용역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을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하셔서 용역 기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한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준비 철저히 하고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규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 UAM 도입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언질을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국토부에서 UAM 지역 시범 사업 선정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올해 2025년도에 시범 사업 공모는 4월에 공고가 나서 6월까지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한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지난번 설명회 때 저희 담당 실무자들이 들었을 때는 내년도에도 유사하게 진행할 거로 보고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응규 위원** 도로·철도 등 대중교통망을 아무리 확장해도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직 항공, 에어택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 대도시, 서울특별시 또는 충청광역연합에서는 대전광역시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지역 시범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26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각 4개 광역 시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야만 '26년도에 선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적 자원과 이제 태동한 충청광역연합에서 이런 아주 거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용역 연구 과제는 4개 시도와 협의회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시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또 UAM 사업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충청권은 연합이 올해 출범을 했지만 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UAM 관련해서 '23년도에 같이 협의를

했고, 그거 이어서 저희 연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할 때는 저희 연합의 단독·독단 사업이 아니고 4개 시도와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4개 시도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 **김응규 위원** 충청권 버티포트 후보지 및 운항 노선 검토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후보지 중에 어느 곳이 대략적으로 선정된 데 있습니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아직 충청 4개 시도에서 예정지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지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리하면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응규 위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과 같은 이러한 기술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또 상용화될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불어서 광역 교통망과 함께 각 시도에 자전거 순환도로망이 다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광역연합도 충청권의 자전거 순환도로를 계획을 해서 관광 사업에 관광 벨트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충청광역연합에서 연구해서 실행하면 어떨까. 그 실행 방법은 좋은 안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내면 그걸 각 4개 시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해당 시도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권장하는 그런 선도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순환도로 관련해서 이수현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하다고 봐요? 충청권 자전거 순환도로.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제가 이쪽 분야는 무지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분야로도 볼 수 있고 관광 분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관광 분야 용역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시행은 어려워도 각 시도나 각 지역마다 따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자가 있고 데크 길도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광역 교통이나 광역 관광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 과밀화로 인한 지상 교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UAM 이러한 새로운 교통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친환경인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이런 것까지 초광역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우리 충청남도를 순환하는 자전거길 개설 관련된 도정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기초마다 자전거 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연계가 되어서 교통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관광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충청광역연합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수현 처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쪽에도 신경 많이 써서 계획에 한번 담아 주시

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운**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공주 탄천~행복도시 간 B/C 기준치가 얼마였어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B/C는 1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때 B/C가 0.6이 나오고 AHP는 0.48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많이 떨어지네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부족합니다, 기준치에 비해서는.

○ **위원장 김광운** 하여튼간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사고 이후에 우리가 조치한 거하고 언제쯤 개통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 **위원장 김광운** 아직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준공이 좀 지연될 것으로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초광역건설환경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2시 00분)

○ **위원장 김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광운 김응규 박란희 박미옥 박주화 안치영 이한영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형령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사 무 처 장 이수현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